

아는 사람만 느끼는 고전어 공부의 즐거움 그리고 중요함

글_ 강대진(서양고전학자)



간혹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 서류를 내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의 불안감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서류에 뭐라고 쓰기 곤란한 란이 있어서다. 바로 내가 하겠다는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밝히려는 부분이다. 인문학 연구

의 효과와 활용방안이라니! 인문학이란 원체 일부러라도 현실과 거리를 두고, 그럼으로써 현실에 대한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던가?

한데 이 밖에도 내가 관련된 학문의 효용을 생각해내야만 할 때가 또 있으니, 회랍어, 라틴어 강의의 처음 몇 시간이다. 낯선 과목 이름에 끌려서 들어온 몇 안 되는 학생들에게, 이 언어들 배우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광고하고 설득해서 계속 강의를 듣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효용을 하나 발견했다. 즉, 중요하다고 알려진 몇 개의 저작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책 중 하나가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다. 국내에 네 가지 번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형설출판사 판(오원교 역, 초판 1973)으로, 좀 옛날식 문장들로 되어있긴 하지만 나로서는 오랜만에 한자가 노출된 책을 읽는 즐거움도 있었다. 특별히 틀린 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고전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매우 즐겁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소쉬르가, 프랑스어의 vingt(스물)이라는 단어의 철자가 '괴물'이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가 라틴어의 viginti에서 온 것이며, 뒤의 모음 두 개가 탈락하고 나머지 자음들의 순서를 뒤바뀌어서 이상하게 짜인 것이란 점을 아는 사람만이 '즐겁다'. 소쉬르가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회랍어의 규칙들을 예로 들 때, 물론 고전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또 '즐겁다'. 그냥 자기가 아는 규칙들이 나오고 설명이 잘 이해될 뿐 아니라, 인도유럽어 원어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아는 유럽언어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도 그렇다. 가령 *septm과 라틴어 septem, 회랍어 hepta의 연결 같은 것이다. 프랑스어 낱말의 강세는 원래 라틴어 낱말의 강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ami(친구)가 라틴어 amicus에서, âme(영혼)는 라틴어 anima에서 왔다는 설명을 덧붙일 때, 라틴어 강세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즐거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중요한 저작을 소개하면서 너무 재미만 강조한다고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재미들이 없으면 이 책은 거의 읽을 수가 없다. 이런 예들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 재미를 놓친 사람들은 이 책에서 후대에 큰 영향을 준 부분만 대충 읽고 지나갈 것이다. (내가 헌책방에서 구해 갖고 있는 이 책의 첫 주인도 -밑줄 그은 것으로 보아 그랬던 것 같다) 그런 독법은 소쉬르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의 의도에 어긋난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언어학 개론서다. 사실 '재미'는 좀 약한 논증이고,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까짓 사소한 재미가 뭐 중요하다고 그 고생을 해서 고전어를 배운단 말인가? 하여, 이번에는 좀 강한 논증이다. 고전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지 보자. 유감이지만 고생해서 쓴 저술 하나를 예로 들어야겠다. 《니체, 데리다, 이리가레의 여성》이란 책이다. 나는 사실 이 책의 제목에 나



오는 네 개의 명사 중 그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거론할 만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책의 전체적 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나 그렇듯 '지엽말단'의 세부문제다.

이 책은 페르세포네를 여성성 뒤에 숨겨진 전복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내세운다.

“이리가레는 페르세포네의 어원도 추적한다. 그리스어로 페르세포네는 ‘per se(그녀) 자체’와 ‘phone(목소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목소리 자체’라는 뜻이다.”(175쪽)

고전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연실색할 대목이다. ‘페르세포네’라는 희랍어식 이름을 설명하는 데에 per se라는 라틴어 어구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라틴어 저작에 나온 이름을 설명하는 데에, 라틴어와 함께 희랍어를 동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로마의 작가들은 희랍어를 잘 알고 있었고, 희랍어의 어떤 낱말과 연결되는 이름을 지어 쓰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경우도 아니다. 페르세포네를 라틴어식으로 부르면 ‘프로세르피나’이니, 거기서는 per se고 phone고 모두 사라져버린다.

사실 표현을 조금 누그러뜨린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 ‘원래의 어원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풀어보려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어원’이라고 소개하고 ‘-라는 뜻이다’라고 뜻을 박아버렸으니 참으로 일이 곤란하게 됐다. 나는 이것이 이리가레의 잘못인지, 아니면 저자께서 이리가레의 논의를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주로 이리가레의 《바다의 연인 Marine Lover of Friedrich Nietzsche》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각주가 달려 있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각주의 인용처 주변을 보았으나 딱 맞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문제점은 페르세포네의 다른 이름인 ‘코레’와 연관된 것이다. 이 책은 “코레는 납치됨으로써 페르세포네가 되는”(177쪽)

것으로 소개하고,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 의해 납치되기 전 처녀였을 때의 이름은 코레 Kore였다”(174쪽)

고 주장하는데, 우선 코레가 페르세포네의 이전 이름이 아니라, 별칭이라는 것을 말해야겠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벌써 페르세포네였다(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913행).

또 이 책은, “코레는 그리스어로 ‘젊은 여성’, ‘눈의 동공’을 뜻한다”(175쪽)면서, 그 동공이 깊고 은밀한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페르세포네는 이런 통찰력과 저승 경험을 토대로 가장 어두운 세계로부터 가장 신성한 세계까지 다 아는 존재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코레’가 지닌 ‘동공’이란 뜻은 파생적 것이다. 우리가 남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 눈동자에 작은 사람의 상이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소녀’로 보아서 그 말이 ‘눈동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LSJ 희랍어 사전》, kore 항목 III). 그 말은 원래 젊은이를 나타내는 kouros의 여성형일 뿐이다. 따라서 누가, 같은 어근의 이름을 가진, 그리고 역시 저승경험을

했던 디오스쿠로이(‘제우스의 젊은이들’)도 페르세포네 못지않게 두 세계를 다 아는 심오한 통찰력의 소유자라고 해도 반박은 힘들게 된다. 여기서도 문제는 표현이다. ‘코레’가 갖는 ‘동공’이란 뜻이 파생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는 정도였다면 누구라도 수긍했을 것이다.

나는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의를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지나치게 강한 주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의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음을 지적할 뿐이다. (희랍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 원래 희랍 땅에 살던 사람들의 신앙은 여신을 중심으로 했으며, 나중에야 남성 중심으로 종교체계가 신화가 재편된 것으로 보이니, 희랍 문화의 근원과 관련해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불우학문’인 제 전공을 선전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번역’이란 영역을 넘어서 공연히 훌륭한 연구를 트집 잡았다. 저자께서는 부디 용서하시기 바란다. 하지만 동양학문을 하는 사람이 한문공부를 게을리하면 곤란하듯, 서양학문을 하는 사람도 전어에 약간이나마 주의해두지 않으면 때로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나의 논지이니, 이 사소한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에 모두들 조금만 주의해주셨으면 한다. ■

●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